

자료소개 : 『당시장편』 - 여성의 唐詩 향유 양상

신현웅*

『당시장편』은 중국 唐詩를 선별해 그것의 한자음만 적고 현토한 필사본이다. 이 책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청구기호:古 3320-6] 분량은 1책 35장이고 크기는 34.5×21.7cm이다. 이 책을 통해 여성이 중국의 唐詩를 향유한 한 방식을 살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당시장편』에 대한 간략한 해제는 이미 규장각 자료 해제집에 수록되어 있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책에는 필사후기가 없어 이 자료를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필사한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사자가 방각본 唐詩選集을 참고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필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우선 『당시장편』은 널리 알려진 자료가 아니므로 그 체제와 특징을 살펴보고 방각본 당시선집과의 관계를 검토한 후에 이 자료의 가치를 논하고자 한다.

『당시장편』에는 ‘당시장편’이라는 표제와는 달리 장편고시, 칠언절구, 오언절구가 수록되어 있어 그 성격을 당시선집으로 규정할 수 있다.¹⁾ 이 책은 「당시장편」, 「칠언절귀」, 「오언절귀」로 구성되어 있으며, 끝부분에는 소식의 <적벽부>와 <후적벽부>가 실려 있다. 수록 편수는 장편고시가 17수, 칠언절구가 103제 104수, 오언절구가 64제 69수이다. 장편은 2단 2행으로 필사되어 있으며, 절구는 작품 제목 아래 2단 2행으로 필사되어 있다. 각 부분의 수록 체계를 살펴보면 「당시장편」에는 歌·行·曲 등이 뒤섞여 필사되어 있다. 백거이의 <장한가>와 <비파행> 사이에 왕발과 잠삼, 최호의 작품이 필사되어 있을 정도로 분류가 체계적이지 않다. 아마도 필사자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규장각 어학해제(김남기)에 이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여러 책에서 필요에 따라 시편을 뽑은 듯하다. 반면 「칠언절귀」는 작가가 활동한 시대순으로 정연하게 필사된 부분[첫 번째 수~74번째 수, ①]과 그렇지 않은 부분[75번째 수~104번째 수, ②]으로 나뉜다. ②에는 ①에 이미 필사된 이백, 두목 등의 다른 작품이 필사되어 있다. 아마도 ②는 ①을 필사한 후에 보충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오언절귀」 역시 작가가 활동한 시대순으로 작품이 정연하게 배열되어 있다.

「칠언절귀」의 ①과 「오언절귀」에 수록된 작품들이 작가 활동 시대순으로 필사되었다는 점은 필사자가 시편을 뽑고 그것을 작가와 시대순으로 분류한 후에 필사했거나, 엄선된 선집에서 작품을 선별해 필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상기시킨다. 전자의 경우라면 필사자가 당시에 대해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장편고시 부분과 「칠언절귀」의 ②에 수록된 작품도 작가의 활동 시대순이나 시체 또는 작가 별로 필사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필사자는 일부분만 엄선된 선집을 저본으로 두고 작품을 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당시장편』의 저본 내지 저본에 가까운 선집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 조선 시대에 출간된 당시선집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칠언절귀」 전체와 「오언절귀」 부분이 방각본으로 간행된 『칠언당음』²⁾과 『오언절귀』³⁾의 시편 수록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발견했다. 아래의 사진은 두 방각본의 작품과 작가 표기 방법이다.

2) 규장각 소장 자료로 서명이 『七言唐音』인 자료(소장기호 : 奎中 2449)이다. 1책 17장의 목판 방각본으로 판심은 ‘唐詩七絶’이며 간기는 ‘乙丑仲夏武橋新刊’이다. 동일본으로는 奎中 2450과 零本인 奎中 2448이 있다. 新舊書林에서 이 무고신간 목판본으로 1913년에 20장을, 博文書館에서 1917년에 18장본을 간행하였으나, 후대 판본에는 「칠언절귀」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빠진 작품이 더러 있다.

3) 규장각 소장 자료로 서명이 『五言絶句』인 자료(소장기호 : 奎中 2330)이다. 1책 36장의 목판 방각본으로 판심은 ‘五言唐音’이며 간기는 ‘庚午仲秋二日銅峴開刊’이다. 동일본으로는 奎中 2134·2136·2137·2138·2139·2140·2141·2331과 가람古 811.03 06이 있다. 신구서림에서 이 동헌개간 목판본으로 1913년에 18장본이, 박문서관에서 1917년에 15장본이, 翰南書館에서 그것을 보각하여 1918년에 40장본이 간행되나, 후대 판본들에는 「오언절귀」에 필사된 작품 가운데 수록되지 않은 작품도 있다. 그리고 판심을 따라 ‘오언당음’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으나 ‘오언당음’으로 불리는 책이 있어 그것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書題를 따라 『오언절귀』라 부른다.



제목의 처음 한두 글자는 크고 나머지는 협주처럼 작으며 작가명은 좌측에 적혀 있다. 『당시장편』 절구에서도 제목과 작가 표기 방법이 이와 같은 형태이다. 그리고 「칠언절귀」의 ①만 엄선된 선집에서 뽑고 ②는 필사자가 임의로 작품을 보충한 부분이라고 추정했는데, 방각본 『칠언당음』을 살펴보니 『칠언당음』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었다. 『칠언당음』은 매우 체계적인 전반부에 이어서 비체계적으로 추록한 후반부로 구성된다. 따라서 필사자는 『당시장편』의 「칠언절귀」와 「오언절귀」를 필사할 때 두 방각본을 저본으로 삼았거나, 그것을 저본으로 삼은 필사본을 저본으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당시장편』이 적어도 두 방각본 간행 이후에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칠언당음』과 『오언절귀』에는 각각 ‘乙丑仲夏武橋新刊’과 ‘庚午仲秋二日銅峴開刊’이라는 간기가 있다. 을축은 1805년 또는 1865년, 경오는 1810년 또는 1870년인데 그 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당시장편』의 필사시기를 19세기 이후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표지의 배접부분에 일제 시대 신문이 붙어 있기 때문에 후대에 필사본을 개장하지 않았다면 20세기 초에 필사되었을 수도 있다.

방각본 선집과 『당시장편』의 절구 부분을 비교해 보니 필사자는 방각본이 지니는 문제점을 바로 잡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필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칠언당음』에는 戴叔倫의 <答元明府>가 重出한다. 그럼에도 필사자는 ①에서는 작가명을 누락한 채 <답원명부>(「칠언절귀 45번째 수)라고 필사하고, ②에서는 유정기의 <디월답원명부>(「칠언절귀 95번째 수)라고

필사했다. 작가명의 경우에는 杜牧을 ①에서는 ‘두목’으로 ②에서는 ‘두목지’로 다르게 필사했다. 필사자가 『칠언당음』을 필사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훑어보기만 했다면 동일 작가를 다르게 적지 않았을 것이며, 추록된 작가의 작품을 앞부분에 다시 모아서 필사했을 것이다. 「오언절귀」에는 ‘정중’(26번째 수)과 ‘우익’(49번째 수)이라는 작가명이 보인다. 이 정중과 우익은 작가명이 아니라 명나라 문인 高棟이 『唐詩品彙』를 저술하며 시대를 구분 어휘로 사용한 ‘正宗’과 ‘羽翼’을 가리킨다. 이것이 방각본 『오언절귀』에서는 올바르게 사용되었지만 「오언절귀」에서는 마치 작가의 이름인 양 필사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필사자가 이러한 시대 구분 어휘뿐만 아니라, 작품의 올바른 작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⁴⁾ 혹은 필사자가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다. 결국 필사자는 당시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며 『칠언당음』의 오류와 비체계적인 부분을 바로잡지 않을 정도로 주의를 덜 기울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필사자는 두 겹으로 된 두꺼운 장지에 작품을 정갈하게 필사하기 위해 종이를 가로, 세로로 접었기 때문에 필사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짐작된다. 그렇다면 제목과 작가 표기 방식에서 보았듯이 그것이 방각본의 판각 형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방각본을 읽을 수 있는 국문대본으로 『당시장편』을 제작했을 수도 있겠다.

분명한 것은 『당시장편』이 방각본을 읽기 위한 국문대본이든 방각본 당시선집의 내용을 암송하기 위한 대본이든, 당시를 음영하고 암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듯하다는 점이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이와 같은 정황을 엿볼 수 있다.

4) 필사자의 수준을 추정할 수 있는 예로 또 다음을 들 수 있다. 유희이의 <디비빅두용>(『당시장편』 12번째 수)의 작가가 이백으로, 위응물의 <문안>(「오언절귀」 64번째 수)의 작가가 전기(錢起)로 필사되어 있으며, 심지어 왕발의 <강정월야송>(「오언절귀」 11번째 수)에는 작가가 양사도와 왕발로 필사되어 있을 정도이다.

구일농산음	九日龍山飲
구일의 용산음하니	九日龍山飲
황하쇼축신을	黃花笑逐臣
취간풍낙모하니	醉看風落帽
무이월유인을	舞愛月留人 (『오언절귀』 36번째 수)

이 작품은 이백의 작품이다. 인용문의 왼쪽은 『당시장편』에 수록된 부분이고 오른쪽은 그것에 해당하는 원문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龍山’의 한자음이다. 필사자는 제목에서는 ‘농산’으로, 본문에서는 ‘용산’으로 필사했다. 국문본의 용례를 찾아보면 ‘龍山’은 대부분 ‘룡산’으로 표기되곤 한다. 따라서 두음법칙이 적용된 ‘농산’이나 ‘용산’은 실제의 발음에 가까운 표기인 것이다. 만약 필사자가 한문 원문을 보면서 필사했다면 같은 작품 내에서 동일한 글자인 ‘龍’을 한 번은 ‘용’, 다른 한 번은 ‘농’으로 필사하지는 않았을 듯싶다. 이는 필사가 음영에 견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예로 일부에서는 두음법칙이 지켜지거나 ‘不’ 다음에 오는 초성에 따라 ‘不’이 ‘부’나 ‘불’로 표기되고 있으며 ‘近’이나 ‘掩’에 해당하는 단어를 각각 ‘견’, ‘음’ 등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이 모음 ‘一’와 ‘ㄱ’이 혼동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당시장편』의 한자음이 실제의 발음에 가깝게 필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한글을 읽고 한자를 역으로 추정할 때는 이러한 오류가 문제될 수 있지만, 음영하거나 암송하기 위한 대본이라면 『당시장편』의 한자음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당시장편』에 언해가 없이 실제의 한자 발음에 가깝게 제목, 작가, 한시의 한글음만 적혔다는 점은 이 책이 한시를 배우거나 이해하기 위한 초학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뜻한다. 고시 17수가 수록되어 있지만 율시는 전혀 없고 짧은 절구만이 필사되었다는 점에서 『당시장편』이 암송용 대본으로써 활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당시장편』을 만들었을까? 그 대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19세기에 이르러 여성을 위해 필사된 책

으로 추정되는 필사본들에는 언해가 없고 원문의 한자음과 현토, 번역된 주석만 실려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 때문이다.⁵⁾ 그 대표적인 예로 장서각 소장 『國風』과 『壺範』을 들 수 있다. 『시경』 작품을 선발한 두 자료에는 그 한자음과 현토, 『詩集傳』의 일부 주석이 번역되어 있다. 이 책은 궁중 여성을 대상으로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된 책으로 추정된다.⁶⁾

번역문이 없다는 점은 원문의 한자음만 읊조리고 외우는 것이 여성에게 중요시되었다는 것이고 향유자가 번역된 주석을 통해 그 구절의 내용만 알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자음만 필사된 『당시장편』은 작품을 이해하기보다는 한시 구절의 암기를 통해 교양을 함양하는 데에 목적이 놓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방각본 선집이 절구 부분의 저본이 되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당시 구절의 암기가 일부 여성에게 교양의 한 범주가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규장각 소장 필사본 『당시장편』의 체계를 살피면서 저본을 추적하고 필사시기를 추정하며 그 성격을 규명해보았다. 『당시장편』은 「당시장편」, 「칠언절귀」, 「오언절귀 및 추록된 前後 <적벽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의 저본을 확정할 수는 없었으나 두 절구 부분이 각각 19세기 방각본 『칠언당음』과 『오언절귀』를 저본으로 삼아 필사된 것임을 밝혔다. 필사자는 한자음을 적을 때 1자 1음의 원칙을 지키며 한자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했지만, 한자음을 검토한 결과 필사가 음영에 견인되고 있었다. 이는 필사자가 한시 작품의 정확한 글자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 구절의 음영이나 암송을 위해 『당시장편』을 만들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17수의 고시가 실려 있지만 읊시는 전혀 없고 암송하기 쉬운 짧은 절구만이 필사되었다는

- 5) 조선시대 여성의 한시 향유와 언어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아래의 논문을 참고했다.
이종목,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a)」, 『진단학보』 104, 진단학회, 2007.
- 6) 사대부가 여성의 번역 문집인 『호연지유고』, 『호연지시집』, 『의유당유고』, 『綺閣閑筆』은 한문의 한글음과 그 번역문만 실려 있는 책이다. 이 번역 문집들은 사대부가 여성이 한문 작품을 향유한 방식을 잘 보여준다. 『시경』 번역본이 여성의 교양을 위해 제작되었다면, 이 책들은 선조의 작품을 후대에 전하고 후손들이 그것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여성의 한문 작품 향유라는 관점에서 『당시장편』이나 『시경』 번역본과 같이 다루어질 수 있으나, 『당시장편』이 유명한 한시 작품들을 교양으로서 향유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본다면 번역 문집을 같은 층위에서 다루기는 어려울 듯싶다.

점도 그 근거가 될 것이다. 곧 『당시장편』은 여성의 한시에 대한 교양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한 책으로 당시 향유 유행의 속에서 산출된 필사본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겠다. 이는 19세기에 이르러 여성에게도 당시 구절의 암기가 하나의 교양이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당시장편』이 여성의 한시 교양 제고를 위해 필사되었다면 필사자가 선발한 작품들의 경향을 통해 『당시장편』에 어떠한 취향이 반영되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각본 당시선집을 저본으로 삼아 필사하면서 필사자가 누락시킨 작품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누락시켰는지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여성에게 요구된, 당시에 대한 교양의 성격을 밝히는 데에 필요한 문제로 판단된다.

이상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당시장편』의 전문을 부록으로 첨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당시장편』(규장각 소장: 古3320-6).
『당시칠절[칠언당음]』(규장각 소장: 奎中 2448·2449·2450).
『오언당음[오언절구]』(규장각 소장: 奎中 2330·2134·2136·2137·2138·2139
·2140·2141·2331, 가람古 811.03 06).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전자자료.
규장각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데이터
문연각 사고전서 CD-ROM.

2. 논문

- 부유섭·강문중, 「『기각한필(綺閣閒筆)』 연구(研究)」, 『고전문학연구』 32, 한국
고전문학회, 2007, 435~464쪽.
이종목, 「조선시대 여성과 아동의 한시 향유와 이중언어체계(Diaglosia)」, 『진단
학보』 104, 진단학회, 2007, 179~208쪽.
허원기, 「壺範의 자료적 성격과 의미」, 『藏書閣』 8,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9
5~112쪽.

부 록 : 원 문

원문입력 : 이준영(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김영연(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수료)

장한가 빅거이

한황이중식스경국하니
어우다년구부득을
양가유녀초장성하니
양지심규인미식을
천싱녀질을난자기하야
일조의선지군왕칙을
회두일소빅미싱하니
육궁분디무안식을
춘한스육화청지하니
온천슈활세웅지을
시아부괴교무력하니
시 〃 신승은택시을
운빈화안금보요로
부용장난도춘소를
춘소고단일고기하니
종츠군왕이부조조를
승권시연무한가하니
춘중춘유야전야을
후궁가려삼천인의
삼천총이지일신을
금옥장성교시야요
옥누연파취화춘을

자미세형이지열토흐니
가련광치심문호을
슈령천하부모심으로
부중성남중심녀을
여궁고쳐입청운흐니
선악풍표쳐 〃 문을
완가만무응사죽흐니
진일군왕이간부족을
어양비고동지리흐니
경파예상우의곡을
구중성궐연진심흐니
천승만괴서람힘을
취화은요 〃 흥부지흐니
서출도문빅여리를
육군이불발무니하흐니
완전아미마전사을
화전위지무인슈호고
취교금작옥소두을
군왕이음면구부득흐니
회슈혈누상화류을
황이산만풍소삭터니
운잔영우등금각을
아미산하의소인형흐니
정기무광일식박을
촉강슈벽촉산천흐니
성주조 〃 모 〃 정을
형궁견월상심식흐니
야우문령장단성을
천선지전회용어흐니

도차쥬저부릉거을
마외파하이토중의
불견옥안공사처을
군신이상고진첩의하니
동망도문신마귀을
귀리지원이기의구하니
트익부용미양뉴을
부용은여면뉴여미하니
더차여하불누슈을
춘풍도리화기야요
츄우오동엽낙시을
서궁남원다츄초하니
낙엽만계홍불소을
이원제자은빅발신요
초방아감은청아노을
석전형비사초연하니
고등을도진미성면을
지 〃 종고초장야요
경 〃 성하육서천을
원앙와령상화중이요
비취금한슈여공고
유 〃 심사별경년하니
흔빅부징니입몽을
임공도시홍도식이
능이정성치흔빅을
위감군왕전전사하니
슈교방사은근먹을
빅공어기분여전하니
승천입지구지편을

상궁벽낙하황천하니
양쳐망 〃 구불건을
홀문희상의유선산하니
산지허무표묘간을
누각녕농오운기하니
기중작약다선즈을
중유일인자티진하니
설부화모참치시을
금궐셔상고옥경하니
전교소옥보쌍성을
문도한가천자사하고
구화장니몽혼경을
람의츄침괴비회하니
쥬박은병위타기을
운빈반편신슈각하니
화관부정하당니을
풍취선메표 〃 거하니
유사예상우의무를
옥용적막누난간하니
이회일지출티우을
함정응체사군왕하고
일별음용양묘망을
소양전리는이절이요
봉니궁중일월장을
회두하망인환처의
불견장안단진무를
유장구물표신정하니
전합금차괴장거을
차유일고합일선하고

차벽황금합분전을
단령심작금전견하니
천상인간회상견을
입별은근중괴스하니
사중유서양심지를
칠월칠일장성전의
야반무인사어시을
지천원작비익조요
지지원위연리지을
천장지구유시진하니
차한면 〃 무절귀을

치런곡 왕발

치런귀하니
녹슈의부용의을
츄풍기랑부안비을
계도난요로하장포하니
나군옥안이경요노을
엽서화담극망평하니
강구월음상스고을
상사고하니
가귀을불가쥬를
시외정부유미환하니
강남치런금이모을
금이모적년화하니
거금나필진창가아
관도성남파상엽이
하여강상의치런화오

엽취분슈미요
화홍강여협을
가인이부지자흐니
창망별니시을
견화연공체요
절우이연스을
고정은무처소요
신물은도화즈을
불석서진교팍히요
환슈북희안서지을
치런가유절이요
치런야미흘을
정봉호탕강상풍터니
우치비회강상월을
비회연포야상봉흐니
오희월녀하봉용고
공문한강천리외예
정직관산노괴중고

츨야장 왕발

츨야장흐니
수미양을
월명노빅징청광을
칭성기각요상망흐니
천무량을
북풍슈절안람상흐니
슌난위질시국방을
명환예리츨장낭흐야

위군츄야도의상을
섬나의디봉황이요
단기의쌍원앙을
조침난저스자상하니
정부만리슈타향을
학관의음신단이요
용문의도로장을
군지천일방하니
한의도자향을

등왕각 왕발

등왕고각이임강저하니
피옥명난파가무을
화동은조비남포운이요
주렴모권셔산우을
한운담영이일유 〃 하니
물환성니도괴츄오
각중제자은금안지오
함외장강이공자류을

어부 잠삼

편쥬창낭쉬가
심여창낭청을
부자도향니하니
무인지성명을
조종탄상반이요
모향노중숙을

가경환부가하니
슈지일간죽을
간두조스장 〃 여하니
고예승뉴무정거을
세인이나득식심취오
츠옹이취적이요비취어을

촉규화가

작일의일화기 하니
금일의일화기을
작일의화정호터니
금일의화이노을
인성이부득항소년 하니
막석상두고쥬전호소
청군유전향쥬가하라
군불견촉규화한다

디규인담경박소년 최호

첩가건격봉황지하니
분벽사창양뉴슈을
분괴한디금오서러니
오가장안유협아을
아가부서다경박하니
차긱탐환중연락을
평명협탄입신평이요
일만휘편출장낙을
청스빅마로야유원 하니

능사형인주마간을
자궁뭉상의변화성이요
불염규중의화조란을
화간뭉상의춘장만흐니
주마투계유미반을
삼시출망무소식이요
일거나지형건원을
도리화지부정난흐고
주루낙일권렴간을
슈리옥주상스곡흐니
포득진징불인탄을

임고디 왕발

임고디 " " " 흐니
초체절부이을
요현괴구하최외오
난가봉취청차이을
부감장안도흐니
쳐 " 어구초을
사디감천로흐니
창 " 무릉슈을
고디스망동흐니
가괴울총 " 을
즈각단루은분소요요
벽방금전은상영농을
동미장낙관이요
셔지미양궁을
적성의영조일이요

녹슈의요춘풍을
기정빅디은지신시오
갑제천땡은분척니을
쥬륜취지는불승춘호고
첩스칭영은상디괴을
부유청누디도중의
슈호문창조괴룡을
금의은쥬불벽이요
나유은석미공을
가병은조음취요
장경은만규홍을
위군안보곡호고
아미뢰화총을
협노진간의암장모요
운간월식이명여소를
원앙지상의양 〃 비요
봉황누하의쌍 〃 도을
물식이정여차호니
가괴을나불고아
은안슈곡이성변화호니
가련금야숙창가을
창가소부은불슈빈허라
동원도리도편시춘을
군간구일고디쳐의
빅양동작이상황진을

비과횡 빅거이

심양강두의야송긱호니

풍엽적화츄슬 〃 을
쥬인하마긱지션하니
거쥬옥음무관현을
취불성환첨장별하니
별시망 〃 강침월을
홀문슈상의비파성호고
쥬인망귀긱불발을
심성암문탄즈슈오
비파성정육어지을
이션상긴요상견하니
첨쥬회등중기연을
천호만환시출니하니
유포비파반차면을
전축발현삼양성하니
미성곡조션유정을
현 〃 음역성 〃 사하니
사소평싱부득지을
저미신슈속 〃 탄하니
셜진심중무한스를
경농만년발부도하니
초위예상후육요을
더현은조 〃 여급우요
소현은절 〃 여스어을
조 〃 절 〃 착잡탄하니
더쥬소쥬낙옥반을
간관잉어은화저활이요
유연천류은빙하탄을
빙천녕삼현응절하니
응절불통성잠흘을

별유 〃 슈암한싱 하니
차시무성이승유성을
은병스파슈장병이요
철기돌출도창명을
곡종슈발당심획허라
스현일성이여열빅을
동선서방의초무언 하니
유견강심츄월빅을
침음방발삼현중허라
정돈의상초염용을
자연본시경성너로
가지하막능하쥬을
십삼의학득비과성 허야
명속교방제일부를
곡과중교선지복 하니
장성티피츄랑투을
오릉년소징전두 하니
일곡홍초부지슈을
전두은비격절쇄요
혈식나군번쥬오을
금년환소우명년 하니
츄월춘풍등한도를
제쥬종군아이사 하니
모리조거안식고을
문전낭낙안마회 하니
노디가작상인부를
상인이중니경별니 하니
전월부양미다거을
거리장구슈공션 하니

요선월명강슈한을
야심홀몽소년스하니
몽제장누홍난간을
아문비파이탄식터니
우문차어중죽 〃 을
동시천의를낙인으로
상봉하필징상식을
아종거년스제경호고
적거와병심양성을
심양지벽무음악하니
중세불문스죽성을
유건분강지비습하니
황노고죽이요턱성을
기간조모의문하성고
두견제혈원이명을
춘강화조츄월석의
왕 〃 취주환독경을
귀무산가여춘적이라
구아조절난위청을
금야의문군비파성하니
여청선악이잠명을
막사김좌탄일곡허라
위군번작비파형을
감아차연양구립터니
각좌축현 〃 전급을
쳐 〃 불사향전성허라
만좌문지기음음을
취중읍하슈쾌다오
강주스마창삼습을

도원형 왕유

어쥬축슈이산출호니
양안도화협거진을
좌간홍슈부지원터니
형진청계불견인을
산구잠형시오터니
산기광망션평육을
요간일처찬운슈요
건입천가산화죽을
초직초전한성명이요
거인미지진의복을
거인이공쥬무릉원호니
환중물외괴전원을
월명송하의방농정이요
일출운중의계건현을
경문속직시니집호야
경인환가문향읍을
평명여향소화기요
박모어초승슈립을
초인벽지거인간터니
강문성션슈불환을
협니슈지유인스리요
세상요망공운산을
불의영경을난지견터니
진심미진스향현을
출동무론격산슈호니
사가종의장유연을
자위경과구불미호니

안지봉학이금너변고
당시지괴입산심흐니
청계기도 〃 운림을
춘리편시도화쉬라
불변선원하쳐심고

양양가 니빅

낙일이육물현산서흐니
도착접니화흐미를
양 〃 소아제박슈흐니
난가징창빅동제를
방인은차문소하사오
소쇄산옹이취스이를
노자작
잉무비로
빅년삼만운천일의
일 〃 슈경삼빅비를
요간한슈압두록터니
흡사포도초발비를
차강이악변작춘쥬면
누곡을변축조구디을
천금준마로환소첩흐야
소좌조안가낙미를
거방의칙괘일호쥬흐니
봉싱용관형상최을
함양시상의탄황건이
하여월흐의경금뇌오
균불견진조양공일편석혼다

구두박낙성미티을
누역부릉위지타요
심역불릉위지익을
청풍명월불용일전미훈다
옥산이자도비인퇴을
서쥬작역사당아
니빅이여이로동사싱을
양왕운우금안지오
강슈동뉴원야성을

대비빅두옹 니빅

낙양성동도리화는
비거비리낙슈가오
낙양녀이석안식희야
형봉낙화장탄식을
금년화락안식기요
명년화기부슈지오
이견송빅최위신요
강문상전변성희을
고인무부낙성동이요
금인환디낙화풍을
년〃세〃화상스요
세〃년〃인부등을
괴어전성홍안즈요
가금반스빅두옹을
차옹빅두진가궁이라
이석홍안미소년을
공즈왕손방슈하에

청가묘무낙화전을
광녹지디의지금슈요
장군누각의화신선을
일조의와병무상식하니
삼춘헝낙지슈변고
완전아미능괴시오
슈유학발이난여사
단간고리가무지의
유 〃 황혼조작비을

파주문월

청천유월니괴시오
아금정비일문지을
인반명월불가득하니
월헝각여인상슈을
교여비경임단꺾하니
녹연멸서청휘발을
단견소종희상니요
영지효향운간물을
옥토쥬리쥬부춘하니
상아고셔여수린고
금인불견고시월이요
금월징경조고인을
금인고인약뉴수의
공간명월지여차을
유원당가더쥬시의
월광이장조금쥬리를

장진주

군불견황하지슈천상니한다
분뉴도희불부회를
우불견고당명경비빅발한다
조여청사모성설을
인싱득의슈진환이라
막사금준공디월을
천싱아지필유용하니
천금산진환부리를
평양견우차위락하야
회슈일음삼빅비를
잠부즈단구싱으로
진슈군막정을
여군가일곡하니
청군위아척이청호소
종고찬옥부족귀라
단원장취불원성을
고리현달이지적막하니
유〃음즈유기명을
진왕석일연평낙의
두슈십천자환학을
슈인하위언소전고
차슈고슈디군작을
오화마
천금구로
호아장출환미슈하야
여이동소만고슈을

유소사

당시아취미인가흐니
미인안식이교여화을
금일미인이기아거흐니
청누쥬박천지익을
취미선빈싱별니흐니
일망불견심단절을
심단절흐니
괴천리오
몽중취와무산운터니
각니누적상슈심을
상강양안화을
미인이불견슈인심을
함비깁쥬녹식금흐니
도고현절무지음을
연〃 상아월은
삼오이팔영우결을
미인혜〃〃〃여
부지위모설을
상시일야미화발흐니
홀도창전의시군을

공자형

천진교하양춘수요
천진교상의변화스을
마슈형합청운외요
인영요동녹파리를

녹파청형옥위사하고
청운니금피작하을
가금양뉴상심슈요
가금도리단장화을
차일오유요미인이요
차시가무입창가을
창가미인울금향이
비거비리공즈방을
적 〃 쥬렴은빅일모요
연 〃 흥안흥분장을
화제비회쌍협접이요
지변고보양원앙을
경국경성한무제요
위운위우초양왕을
고리용광인소선이라
항부금일요상건을
원작경나착세요 〃야
원위명경분교면을
여군상향전상친이요
여군쌍서공일신을
원작정송천세고니
슈론방근일조신가
빅년동사서산일이요
천세만고북망진을

추천사 왕건

장 〃 사승자부벽하고
뇨 〃 황지고빅척을

소년녀아중츄천하야
변진결디분양변을
신경군박이식녀하니
쌍슈향공여쵸익을
하리입지중계의하니
부외사풍고부득을
방인송상나죽귀오
종도명당투자기를
회 〃 약여고슈제하니
두상보차중타지를
안전징승난위휴하니
죽답평지간시슈을

철언절귀

치련곡 하지장

계산이파무울차아하니
경슈무풍야자과을
막언춘도방비진하라
별유중뉴치지하을

회향우셔

소소이향노디회하니
향음무기빈모쇠을
아동이상견불상식하고
소문긱종하쳐리오

송원이사안서 합가운

위성조우읍경진하니
각사청 〃 유식신을
권군김진일비쥬하니
서출양관무고인을

송별 왕유

송군남포누여사하니
군향동쥬사아비를
위보고인초취진하니
여금불사낙양인을

구일역산동형제

독지이향위이각하니
미봉가절비사친을
요지형제등고쳐하니
편삼쥬경소일인을

한식사상작

광무성변의봉모춘하니
문낭귀각이누첩건을
낙화적 〃 제산조요
양뉴청 〃 도슈인을

희제반석

가련반석이임천슈하니
부유슈량불쥬비를
약도춘풍불희의면
하인취송낙화리오

양주사 왕지환

황하원상빅운간의
일편고성만인산을
강적은하슈원낭뉴오
춘랑이부도옥문관을

규원 왕사빅

규중소부 〃 징슈하니
춘일웅장상취루을
홀견뵙두의양뉴식하고
회교부서떡봉후을

서궁춘원

서궁야정빅화향하니
육권쥬림춘한장을
사포운화심견월하니
농 〃 슈식이은소양을

치런곡

하염나군일식지흐니
부용향금양변기을
난입지중간불견흐니
문가시각유인리을

출시형

빅화원두망경사흐니
황하슈류무진기을
궁츄광야형인절흐니
마슈동너지시슈오

청누원

향위풍동화입누흐니
고조명징완야슈를
장단관산불희설흐니
의 〃 잔월이하림구을

중별이평스

막도츄강이별난흐소
쥬선명일시장안을
오희완무로유군취흐니
슈의청풍빅노한을

이창조택야음

상천뉴음고정환하니
은축금노야불한을
육문오강별니의하니
청산명월이몽준간을

제야 고달부

여관한등의독불면하니
직심하사전쳐런고
고향금야사천리요
상빈명조우일년을

시상청적

설정호천목마환하니
월명강적슈루간을
차문미화하쳐락고
풍취일야만관산을

영휴가

영휴소년이염원야하니
호리몽용엽성하을
노휴천중불취인이요
호아십세능기마을

옥관괴장안주부

동거장안만리여하니
고인이나척일횡서오
옥관서망감장단하니
황부며조시세제을

봉입경사

고원동망노만 〃 하니
쌍슈용종의누불건을
마상의상봉무지필하니
빙군전어보평안을

목숙봉기가인

목숙봉변의봉입춘이요
호로하상의누첨건을
규중지시공상억하고
불견사장슈채인을

춘몽

동방작야의춘풍괴하니
요역미인상강슈을
침상편시춘몽중의
형진강남슈천리를

쥬천티슈석上취후작

쥬천티슈능금무흐니
고당치쥬야격고을
호가일곡이단인장흐니
좌직상간누어우을

풍교야박 장의손

월낙오제상만천흐니
강풍어화디슈면을
고소성외한산사의
야반종성도직션을

쇼양곡 유문방

작야승은숙미앙흐니
나의유디어로향을
부용장소운병암이요
양뉴풍디슈전양을

송비랑중뽕길쥬

원제각산모강두흐니
인자상심슈자류를
동작축신군강원흐니
청산만리일고쥬을

신식도중작

소조독향여남형하니
꺾로다봉한괴영을
고묵은창 〃 이란후하니
괴가동주일고성을

증최구

연군일견일비가하니
세 〃 무여노거하오
빅옥점간츄초몰이요
청운막도고인다호소

과정산인소거

적 〃 고잉은제형원이요
요 〃 일견은폐도원을
낙화방초무심쳐요
만학천봉독폐문을

괴별츄십유

천서원소창낭강이
괴도임기병미릉을
강희망 〃 춘옥편하니
형인일괴발금능을

심성선사난야

추초황화부고천하니
격념요견괴인연을
산승독지산중노하니
유 〃 한송견소년을

제쥬셔간

독연유초간변성하니
상유황니심슈명을
춘조더우만의급하니
야도무인쥬자횡을

한식괴경사제형

우중금화공지렁이요
강상뉴잉독좌청을
파쥬간화상제제하니
두릉한식초청 〃 을

구월구일

금조파쥬부초창하니
억지두릉전사시을
명년차일지하쳐오
세란환가미유괴을

방왕시어불우

구일구치일 〃 한흔니
심군불우 〃 공환을
피리시스청인골흔니
문디한유설만산을

등누괴왕경

답각반림한부동흔니
초운창희스무궁을
슈가침저은츄산하요
일군형진은한우중을

산형

원상한산석경흔니
빅운심쳐유인가을
정거좌익풍님만이라
상엽이홍어이월화를

한식 한군평

춘성무쳐불비화라
한식동풍어류사을
일모한궁의전랍축흔니
청연산입오후가을

귀안 전중평

소상하사등한회오
슈벽사명양안티을
이십오현탄야월의
불승청원각비리을

청린가취싱 량군쥬

봉취성여격치하하니
부지장의시슈가오
중문심쇄무심쳐하니
의유벽도천슈화을

빅님사남망

계상요문정사중하니
박쥬미경도심송을
청산제후의운유지하니
화출서남삼사봉을

협구송우인 사공문명

협구화비육진춘하니
천이거쥬각첨건을
너시만리동위킵터니
금일번성송고인을

강촌즉사

파도귀릭불계션흐니
강촌월낙정감면을
종연일야풍취거흐니
지지노화천슈변을

만흥 두보

장단춘강옥진두흐니
장녀서보입방슈을
전광뉴서은슈풍무요
경박도화은축슈류을

답원명부

산하고성의월상지흐니
상유일취본무귀을
명년차석의유하쳐오
종유청광지디수을

송여소부

공취유방독귀거흐니
고원고사일상친을
삼산고로무양뉴흐니
절취동화괴원인을

제엽도스산방

슈변양뉴적난교라
동니신선벽옥소를
건득마고셔신부아
심양강상의불통도를

궁원

노습청화춘전향하니
월명가취지소양을
스장히슈첨궁누하니
공적장문일야장을

변쥬문각 무빅창

하쳐금가월니비하니
유 〃 변직몽선지를
선우성상관산월이
금일중원홀히취을

괴슈궁 왕건

옥누경칙분장공호하니
중첩청산요고궁을
무제불리홍슈진이라
야화황접영춘풍을

남유감흥

상심옥문전조스라가
유견강뉴거불회를
일모동풍춘초록하니
자고비상월왕디을

강능사지여쥬

회간파로지운간하니
한식이가믹숙환을
일모슈봉청스럼하니
상인설시여쥬산을

화청궁

쥬만고루일빅가라
궁전양뉴사전화을
니원분득은냥슈하니
이월중순이분조를

감춘 장문창

원직유 〃 임병신하니
슈가지상우봉춘을
명년각자동서거라가
차지간화시별인을

한형

노신불계인간스흐니
야사츄청미독고을
병안이교리유단쥬흐니
각험형처국화다을

춘별곡

장강춘슈녹감념흐니
하엽이출슈티여전을
강두교슈군즈중흐니
나불장계목난선고

한당곡

한당침 〃 유엽소흐니
슈암인어경서부을
쥬중소년취불기라
지촉조슈사유어을

석두성

산위고국쥬조지흐니
조타공성적막회를
회슈동변은구시월이라
야심환과여장너을

죽지사

산도홍화만상두호고
촉강춘슈박산류을
화홍이쇠사랑의요
슈류무한사롱슈을

등낙뉴원

장강은담 〃 고도물흐니
만고소침향차중을
간취한가하이업이나
오릉무슈괴츄풍을

한강 두목지

용 〃 양 〃 빅구비흐니
녹정춘심호염의을
남거북니인즈로흐다
석양장송도선귀을

박진회

연룡한슈월농사흐니
야박진회건쥬가을
상녀은부지망국한호고
격강유창후정화을

추석

은축추광녕화병하니
경나소선박유형을
천계야식이양여슈하니
와간견우직녀성을

강남춘

천리잉제녹영홍하니
슈촌산곽쥬괴풍을
남도스빅팔십스의
다소누디연우중을

회오중풍슈지

장쥬원의초소 〃 하니
각산유정세월요을
유 〃 별시금불망이라
모연츄우과풍교을

함양 니의산

함양궁궐이울차아호고
유국누디염기나을
자시당시천제취하니
불관진지유산하을

요지

요지아모괴창기흐니
황죽가성이동지익을
팔준일횡삼만리흐니
목왕하스부중너을

한궁사

청작서비경미회흐니
군왕이장지집영디을
시신이췌유상여갈흐니
불사금경노일빅을

유감

비관송옥유미사흐고
자시양왕이몽각지을
일자고당부성후의
초천운우진감의을

상아

운모병풍촉영심흐니
장하점낙효성침을
항아옹회투영약이라
벽히청천야〃 심을

궁사

군은이여슈향동뉴하니
득총우이실총슈을
막향준전의쥬화락하라
양풍지지전셔두을

방은자불우

성곽의휴과식자회하니
이원제쳐유시비을
창강빅석어초로의
일모귀리우만의을

서정

차야서정의월정원하니
소림상반숙풍연을
오동의막강변청노하라
고학중니부득면을

월석

초하음춤엽상 〃 이라
쥬란초취압호광을
토한섬녕계화빅하니
차야상아응단장을

청평사 니벽

운상의상화상용흐니
춘풍불함노화룡을
약비군옥산두견이면
회향요디월하봉을

우

일지농념노응향흐니
운우무산왕단장을
차문한공슈득사오
가련비연이의신장을

우

명화경국양산환흐니
장득군왕디소간을
희석춘풍무한 〃 은
침향정복의 〃 난간을

청적

일위천길거장사흐니
서망장안불견가을
황학누중의취옥적을
강성오월의낙미화를

장문원

천회북두괘셔루흐니
금옥무인형영뉴을
월광이육도장문전흐니
별작심공일단슈을

천문산

천문중단초강기흐니
벽슈동뉴지북회를
양안청산은상디괴흐고
고범일편은일변니을

증화경 두보

금성스관일본 〃 흐니
반입강풍반입운을
차곡이지웅천상유라
인간능득괴회문고

범동정 유우석

평호일망상연천흐니
추경천심하동천을
홀경슈상의강화만이라
의시승주도일변을

산중디작 니벽

양인이디작산화지흐니

일비일비부일비를

아취육면군츠거흐니

명도의유의포금너을

강반독보심화 두보

강심죽정양삼가의

다시홍화영빅화를

보담춘광지유처의

응슈미쥬송싱의를

모춘귀고산 두보

곡구춘잔황도회흐고

신이화진헝화비를

시련유죽은산창하의

불기청음디아귀을

폭포 멩호연

일조향노싱자연흐니

요간폭포괘장천을

비류직하삼천척흐니

의시은하낙구천을

증쇼관서귀 두십언

지군서귀보편 〃 하니
위허중계부삭변을
홍분누중의응계일이요
연지산하의막경년호소

츄강별 노조연

조시타향슈조츄호고
강정명월이디강뉴을
이각서천상별니요
부간진쥬은이쥬을

아미산월가 니빅

아미산월이반륜츄하니
영입평강 〃 슈류을
야발청계향삼협하니
사군불견하유쥬을

소년형 니빅

오릉년소금시동의
은안빅마로도출풍을
낙화답진유하쳐오
소입호희쥬스중을

축중구일 왕긔안

구월구일망향디요
타석타향송긔비를
인정은이염남중약이요
홍안은나중북지리오

빅제성

조스빅제치운간흐니
천리강능일 〃 환을
양안원성은제부진이라
경주이과만중산을

산정하일 유우석

녹슈음농하일장흐니
누디도영이입지당을
슈정염동미풍긔흐니
일가장미만원향을

강남봉니구년 두보

기옥택니의심상견이요
최구당전의긔도문고
정시강남호풍경의
낙화시절의우봉군을

디월담원병부 유정기

산하고성월상시의
상유일취본무귀을
명년츠석의유하쳐오
종유청광지디슈을

두견

촉훈천년상원슈오
성 〃 제혈염화지을
만산명월동풍야의
정시슈인불미시을

각중형

난릉미쥬울금향하니
옥완성니호박광을
단스쥬인능취각이라
부지하쳐시타향을

방은자불우 멩호연

낙화유슈인천티하니
반취한음독자리를
쥬창선웅은하쳐거오
만정홍형벽도기을

무산송별 니백

오천리의의삼위각이요
십이봉두의일망츄을
무한별혼초부득하니
석양서하슈동뉴을

청명 니가우

청명시절의우분 〃 하니
노상형인이욕단혼을
차문쥬가하쳐지오
목동요지형화춘을

삼월회일 두목

삼월정당삼십일하니
풍광별아고음신을
공군금야불슈 〃 하니
미도효중유시춘을

미인가

화란강성의사일음하니
잉제슈호효운심을
춘풍이부도쥬렵격이라
전득가성여익심을

위쥬

정 〃 고월은조형선호고

적 〃 장강은만리유을

향국은부지하쳐시오

운산만 〃 사인슈을

강누셔감

독상강누사묘연호니

월광은여슈 〃 여천을

동니망월인하쳐오

풍경의회사거년을

오언절귀

도중한식 송지문

마상의봉한식호니

도중의속모춘을

가련강포망호니

불견낙교인을

별두심언

와병의인스절호니

차군만리힘을

하교의불상송호니

강슈원함정을
조발소슈

녹슈은진경도요
청운은낙슈교을
고원이장지목하니
흔거불소초을

도한강

영외의음셔단하니
경동부역춘을
건향정깁접하니
불감문니인을

동관구 현중황제

하곡회천리요
관문한이경을
소초비시덕하고
설험도천평을

제원씨별업 하지장

쥬인을불상식하니
우좌위림천을
막만슈고쥬하라
낭중의자유전을

강녕어장안귀양유구일부 허경중

심축남운서요
신슈복안력을
고향이하국이
금일의기화기오

선 우세남

슈류음청노하니
유향이출쇼동을
거고성자원하니
비시적츄풍을

과주가 왕적

차일의장혼음하니
비관양성영을
안간인진취하니
하인독위성고

부미인 니의부

루월성가선이요
지운작무의을
자련회설영하니
호취낙천귀을

강정월야송 왕발 양사도

강송파남슈요
산횡시북운을
사정츄야월의
슈견읍니군가

기이

난연은농벽체요
비월은향남단을
적막이정음흐니
강산이차야한을

입강

범 〃 범동뉴슈요
비 〃 북상진을
귀참이장별도흐니
구시권유인을

증니십사

난죽은지삼경이요
비화은만사린을
증니양즈턱흐야
별유상현인을

역슈송별 낙빈왕

차지의별연단호니
장사발충관을
석시의인이몰터니
금일의슈유한을

쇼군원 동방규

한도방전성호니
도정의족무신을
하슈박명첩으로
신고사화친을

기이

음누사단봉이요
함비향빅용을
선우랑경희나
무부구시용을

강빈미 왕적

홀견한미슈호니
기화한슈빈을
부지춘식조호니
의시농주인을

남형별제 위승경

담 " 장강슈요

유 " 원직정을

낙화상여한하니

도지일무성을

기이 일작 영안

만리의인남거하니

삼춘의안북비를

부지하세월의

득여이동귀오

추조남경 설직

직심경낙목하니

야좌청츄풍을

조일의간용발하니

성일까지경중을

남방누 우준

거국삼파원이요

등누만리춘을

상심강상직이

불시고향인을

동중구호

포옥삼도초요
회서십상진을
년 〃 낙양택의
화가농귀인을

봉화원일사군신빅엽 무평일

녹엽은영춘록이요
한지은역세한을
원지빅엽슈하야
장봉만년환호세

수세 장설

고세은금소진이요
신년은명조리를
슈심이슈두병호니
동북망춘회를

정야사 정중

상전의간월광호니
의시지상 〃 을
거두망명월이요
저두스고향을

상봉형 니빅

상봉홍진니호야
고읍황금편을
만호슈량니의
군가아나변고

녹수곡

녹슈의명츄월호니
남호의치빅빈을
하화교육어호니
슈쇄탕주인을

원정

미인이권츄렴호고
심좌빈아미을
단견누흔습호니
부지심한슈오

츄포가

빅발이삼천장호니
연슈사지장을
부지명경니의
하쳐득츄상고

관방빅응

팔월의변풍고흐니
호응이빅금모을
고비일편설흐니
빅니의견츄호을

억동산

불향동산구흐니
장미괴도화오
빅운은환자산흐니
명월이낙슈가아

독좌경정산

중조은고비진이요
고운은독거한을
상간양불념흐니
자유경정산을

자견

디쥬불각명흐니
낙화영아의을
취귀보계월흐니
조환인역희을

하일산중

니요빅우선호고
라체청님중을
탈건괘석벽호고
노정쇄송풍을

구일농산음

구일의용산음호니
황화소축신을
취간풍낙모호니
무이월유인을

별동님사승

동님송직처에
월출빅원제를
소별여산원호니
하연과건계오

디설현중형우성지

작아양원설의
제한형부지를
정정의간옥슈호니
장단억연지를

임고디 왕유

상송임고디하니
천원묘하극고
일모비조환하니
형인이거불식을

식부인

막이금시총이요
능망구일은을
간화만안루하니
불공초왕언을

잠시

가쥬땡진하요
문디땡진구를
상유강남션하니
괴서가중부아

기이

군즈고향니하니
응지고향사을
너일괴창전의
한미착화미아

송별

산중의상송파하니
일모음시비을
춘초은년 〃 록하니
왕손은귀불귀을

죽니관

독좌유황니하야
탄금부장소를
심님의인불견하니
명월이니상조를

소년형

유각산호편하니
빅마교불형을
장디절양뉴하니
춘일의노방정을

숙건덕강 멩호연

이쥬박연저하니
일모직슈신을
야광천저슈요
강청월건인을

송우지경

군등청운거요
여망청산귀을
운산을중차별하니
누습벽나의을

춘효

춘면불각효하니
쳐 〃 문제조를
아리풍우성의
화락지다소를

심국화담주인 우익

형지국화담하니
춘서의일이사를
주인이등고거하니
계견이공지가을

낙양도 저광희

낙슈춘빙기요
낙성춘슈록을
조간터도터하니
낙화난마족을

기이

더도직여발호니
춘일의가괴다을
오름귀공즈가
쌍 〃 명옥가을

장안도

서형일천리호니
명식이싱한슈을
암문가취성호니
지시장안노을

팔진도 두보

공기삼분국이요
명성팔진도를
강뉴석부전호니
유한이실탄오을

절귀

강벽조유벽이요
산청화옥연을
금춘의간우과호니
하일시귀년고

장간형 최호

가임구강슈흐니
너거구강칙을
동시장간인으로
싱소불상식을

기이

군가쥬하쳐오
첩쥬지횡당을
정선잠차문흐니
혹공시동향을

강남곡

하저다풍낭흐니
연선이점각회를
나릉불상디오
독지역조귀을

전가춘망 고적

출문무소견흐니
춘식이만평무를
가탄무지이흐니
고양일쥬도를

견위슈사진천

위슈동뉴거흐니
하시의도용쥬오
빙첨양횡누흐니
괴향고원류을

등관작누 왕지환

빅일은의산진이요
황하은입희류을
육궁천리목흐니
강상일칭누을

규원 심여균

안진셔란괴흐니
슈디몽불성을
원슈고월영흐야
유조복과영을

춘궁회고 유장경

군왕을불가견흐니
방초구궁춘을
유디나군식흐니
청 〃 향초인을

봉설숙부용산

일모창산원이요

천한벽옥빈을

시문간견폐하니

풍설야귀인을

문안 전귀

고원이 묘하쳐오

귀사방유지를

회남츄우야의

고제문안리를

동포즈츄지독숙

산월은교여축하니

상풍이시동죽을

야반의조경서요

창간의인독숙을

영성

만물이자심성하니

티공항적요을

환중정중기하야

각향정중소를

추원 황보염

장신의다츄식이요
소양의차월화를
나간폐영항이라
문도선량가을

장신궁 유방평

몽니의군왕건이요
궁중의하한고을
츄풍의능지열흐니
단선이불사노을

강설 유종원

천상의조비절이요
만경의인종멸을
고췌쇄립옹이
독조한강설을

적벽부 송소식

입술지츄철월기망의소지여긱으로범췌유어적벽지하혈시청풍은서리흐고
슈과은불홍이라거췌속긱흐야송명월지시흐고가요조지장이리니소언의월출
어동산지상흐야비회어두우지간이라빅노은황강흐고슈광은접천이라종일위
지소여흐야능만경지망연이라호 " 여빙허어풍이부지기소지흐고 표 " 호여
유세독넙흐야우화이등선이러어시의음췌낙심흐야고현이가지흐니가의왈계

도혜난장으로격공명혜소류광이로다묘 〃 혜여회망미인혜여천일방이로다긱
 유취통조자하야의가이화지하니기성이오 〃 연여원여모하야여음이오 〃 부절
 여루하야무유학지잠교하며읍고주지예부라소지추연정금하야위좌이문긱왈
 하위기연야오긱이왈월명성희예오작이남비하니차비도밍덕지시호아서망하
 구하고동망무창하니산천이상교하야울호창 〃 하니차비밍덕지곤어쥬량자호
 아방기좌형쥬하고하강능하야순류이동야에축노천리요정긱폐공이라시쥬임
 강하야황삭부시하니고일세지웅애러니이금의안지 〃 오향오여즈로어초어강
 저지상하야여어하이우미룩하고가일엽지편쥬하야거포준이상축하니긱부유
 어천지요묘창긱지일속이라익오싱지쥬유에는선장강지무공이라협비션이오
 유하고포명월장중이라지불가호취득에는탁유향어비풍이로라소지왈긱역지
 부쥬여월호아서지여스이미상왕애요영허지여피이졸막쇼장애라기장즈기변
 즈이관지즉천지도증부름이일순이요자기불변자이관지즉물여아로기무진장
 야이우하선호아차부천지간의물각유쥬하니구비오지소유면쥬일호이막취로
 되유강상지청풍과여산간지명월은이득지이위성하고목우지이성식하야취지
 무금하며 용지불갈하니시조물자지무진장야이오여자지소공적이라긱이희이
 소하야세잔긱작하니효긱진하고비반이낭자하야상여침자호쥬중이러니부지
 동방지긱획이러라

후적벽부

시세십월지망의보자설당으로장귀우임고하니이긱이종여하야과황니지판
 하니상노는긱강하고목엽은진탈이라인영이지지의양견명월이라고이낙지하
 야형가상답이러니 〃 탄왈유긱무쥬하고유쥬무회로다월빅풍청하니여차양
 야의하오긱이왈금자박모의거망득어하니거구세린이상여송강지노하니고안
 소득쥬호아긱이모체부헌디뵈왈아유두쥬하야장지구의라이디자부시쥬라하
 니어시에 휴쥬여어하고부유어적벽지하혈시강뉴유성하고단안천척이라산고
 월쇼하고슈락석출이라증일월지긱하오이강산을불가부지의로다여니섭의이
 상하야이참암피모용하고거호표등교룡하야반서끝지위소하고부풍이지유긱
 하니긱이긱이부릉종언이라획연장소하니초목이진동이라산명곡웅하고 풍긱

슈룽이라여역초연이비호고숙연공호야눔호기불가유애라가반이등쥬호야방
호중뉴호고청기소지이휴언이러니시아장반에사고적외라적유고학이횡강동
니호니시여거륜이요현상호의로알연장명호야약여쥬이셔애러니슈유에각거
호고여역취슈러니몽에일도시우의편천으로과임고지하호야읍여이언왈적벽
지위낙호아문기성명헌디면이부답호니호회 " 라이지지의로라쥬석지야에
비명이과아지비자야애아도식고소호고여역경오호야기호시지호니불견기체
러라